

# 북스

Books

## 父性이 사라져가는 시대 '아버지' 호칭 유지는 집에 가져가는 월급 덕분

### 아버지란 무엇인가

루이지 조야 지음·이은정 옮김

“니들 그 냄새 맡아 봤니? 새끼 잃은 부모 속 냄새. 새끼 잃은 부모 속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 밖까지 진동하는 법이야.” 영화 ‘괴물’의 아버지 ‘희봉’(변희봉)의 대사.

이탈리아 심리학자이자 미국에서 활발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루이지 조야의 ‘아버지란 무엇인가’는 이 시대 아버지들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다.

아버지가 탄생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각 시대 별 아버지의 위상과 의미 등을 되짚었다.

또 아버지가 가족의 부양자 외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존재로 치부되는 현대의 모순을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아버지들은 가족과의 단절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으며 방황하고 있다. 부인과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애정이나 보살핌이 아니라 오직 금전적인 경제능력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화와 문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됐다. 과거의 공동체 문화가 붕괴된 뒤 가족이라는 의미도 퇴색되고, 아버지의 존재도 단순히 돈을 버는 기능만 강조된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은 여성과 어린이를 거부장적 권위로 지배하고 있는 가정의 독재자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등으로 대표되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현재의 아버지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저자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류가 가족과 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결속력 때문이고, 이를 보호한 것도 그들이었다.

저자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가정 바깥으로 내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싸주고 그가 고민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 어떠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아버지가 완벽한 영웅이나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완벽한 아버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아버지는 혈연뿐 아니라 정신적인 결속을 통해 관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현대 법률의 토



대를 만든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 의해 양육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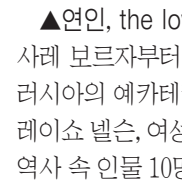
그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 아버지 카이사르 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배웠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생물학적인 혈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르네상스·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새책



▲선지식에게 길을 묻다=산중의 눈 밝은 수행자들이 알려주는 진정한 나를 찾는 구도와 깨달음의 세계.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차장이 불교계의 이름난 스님 8명을 찾아가 그들이 깨우친 경지와 수행 방법, 일상생활 등을 들어보았다. 진제·혜정·고우·우룡·무비·근일·무여·해국스님을 만났다. 〈은행나무·1만5천원〉



▲연인, the lovers=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모델이 됐던 체사레 보르자부터 영국의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 메리 스튜어트,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 히틀러, 에바 페론, 영국의 해군 제독 호레이쇼 넬슨, 여성 스카피 마타 하리,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까지 역사 속 인물 10명의 사랑을 엿본다. 〈청아출판사·1만5천원〉



▲프리하기 사랑한 천재들=신문기자 조성관 씨가 프라하 출신의 유명한 예술인들을 소개했다. ‘변신’의 작가 카프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밀란 쿤데라, 영화 ‘아마데우스’를 만든 밀로시 포만, 음악가 드보르작과 스메타나, 희곡작가인 하벨 전 대통령 등 모두 6명의 흔적을 직접 답사하며 쓴 글이다. 〈열대림·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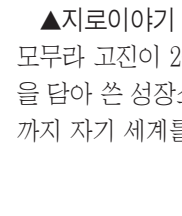
▲가족지 말고 당당하게=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미셸 오바마의 인생 이야기를 소개한다. 다른 이에게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과 공부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 끊임없는 노력, 당당함 등 오바마의 미셸을 만든 성공 비결을 이야기한다. 〈부키·9천800원〉



▲나비아 나비아=목포출신 소설가 은미희씨의 장편 역사소설. 조선 중기 황진이, 허난설헌과 더불어 시와 사랑을 위해 운명을 불사른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 이옥봉의 삶을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도 화려한 필치로 그려냈다.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뜨거운 언어로 뽑아낸 ‘사랑’ 시를 통해 파란만장한 생애를 읽을 수 있다. 〈문학의문학·1만1천원〉



▲성남 서울=‘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과 일본 신사회운동의 대표주자인 아마미야 카린이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50% 이상이 무직인 한국의 20대에게 미래가 있는지 고민했다. 분노의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두 저자의 대화를 통해 빈곤과 차별이 있는 곳에서도 희망과 연대의 가치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꾸리에·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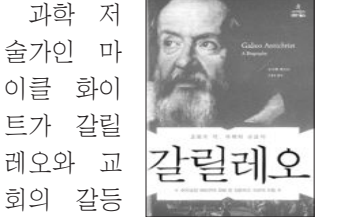


▲지리이야기 1, 2=20세기 초반 교육운동을 벌인 일본 작가 시모무라 고진이 20년에 걸쳐 쓴 필생의 역작이자 작가 자신의 영혼을 담아 쓴 성장소설의 고전. 주인공 지로가 태어나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세계를 개척하며 한 인격체로 커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양철북·1권 1만4천원, 2권 1만3천원〉



▲아름다운 용서=무안 출신 커피메이커 서수미씨의 자전 에세이.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바쳐졌으므로 운명의 수레바퀴를 정성껏 돌리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고 싶다는 저자의 가정사를 담았다. 거센 바람에서 세찬 칼바람에 휘둘러면서도 희망을 쉬 놓지 않는 저자의 의지가 애처러우면서도 아름답다. 〈아네스출판사·1만3천원〉

### ‘갈릴레오-교회의 적...’ 교회와의 갈등 재조명



과학 저술가인 마이클 화이트가 갈릴레오와 교회의 갈등을 재조명한 ‘갈릴레오-교회의 적, 과학의 적’을 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자연 철학자 갈릴레오는 오늘날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추앙되지만 당시에는 지동설을 옹호한 죄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재판관을 받은 뒤 말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낸 죄인이었다.

책은 교황청에서 400년 동안 숨겨 온 갈릴레오 재판의 진실을 토대로 급진적인 과학적 발상을 노획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와 부적절한 장소를 살았던 과학자의 삶을 조망하며, 갈릴레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사이언스북스·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

### 나를 위해 웃다 정한아 지음



김영하·박민규 등을 배출해 낸 문학동네 작가상(2007) 수상작인 ‘달의 바다’는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할머니로부터 소식이 끊긴 고모가 미국에서 우주비행사로 근무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으로 떠난 주인공 공이 알게 되는 ‘사실’은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묘하게 슬프지 않고 희망적이다.

‘달의 바다’의 정한아가 2년간 발표한 단편들을 묶어 작품집 ‘나를 위해 웃다’를 펴냈다.

그녀 작품 속 주인공들은 화려하거나, 편안한

### 가족이 있어 삶을 웃게 하는 선물

삶을 누리는 인물이 아니다. 하지만 주인공들의 인생을 들여다 보면, 딱 막힌 답답한 대신 그 속에서 어떤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 작품 읽는 재미가 크다.

표제작은 엄마 뱃속에 있는 ‘내’가 들려주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다.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 키가 커가는 엄마. 2m를 훌쩍 넘긴 엄마는 농구선수 등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만다. 그러나 그 배신은 엄마에게는 큰 아픔이 되지 않는다. 삶을 긍정하는 엄마에게는 말이다.

그녀 소설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마 대신 집안 일을 하는 등 다소 나약한 모습이지만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처럼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적막한 땅에서 작은 씨를 띄우듯, 작은 몸부림이지만 삶의 작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기운이 느껴져 여가를 감싸안아주고 싶어진다.

똥똥하고 촌스럽던 엄마를 자전거에 싣고 달리는 ‘댄스댄스’ 속의 아버지나, 아르헨티나로의 이민 생활을 실패하고 돌아온 ‘마테의 맛’ 속의 아버지에게선 모두 진한 가족애가 느껴진다.

그밖에 ‘휴일의 음악’은 아내가 있는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라는 다소 통속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향은 새로운 작품이고 이스라엘 카부츠 농장을 배경으로 한 ‘헬로농장’도 독특하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합격생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 상위권대학 편입전문강좌 =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전남대편입 특별반운영/ 의약대 편입 " 김영 편입학 Know-how " 1:1 폰 문자상담 010-7766-1254 KY Membership 회원모집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캠퍼싱! 엄청난 혜택을 누리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혜택/ 동일한교재/ 동일한시스템!

새로운 출발! 성공의 첫단추! - www.kimyoung.co.kr

# 대학편입 "역시, 김영"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광주분원 김영편입학원 [ 광주동부경찰서 뒤 ] 227-8088

## 편입영어 전문강좌

- 영어 초보자를 위한 기초이론반 (문법/ 독해/ 어휘)
- 파트별 문제풀이 적용반 (문제적응/ 독해적응/ 어휘적응)

= 김영 TEST =

- Daily weekly monthly Test 를 통한 자신의 강점/ 약점을 파악 수정, 보완
- 매일 출석 출결 점검 □ 개인별 학습상담

개강 5월 4일

# 공인중개사

광주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직장인, 주부, 학생을 위한

## 국비환급 100%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 박문각 교재, 동영상30%DC ▶ 기출문제 풀이(수요일)민변, 목요일(오후 3시~6시)

본원만의 합격비법 전수

## 개강 5월4일(월)

"전국 최대,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529-8838

● BUS: 37번, 65번, 89번, 98번  
● BUS: 운림고교 입구(제2광천교) 26번, 36번, 47번, 64번, 51번  
● BUS: 서강정보대 입구 18번, 58번, 63번

성동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 이뤄집니다! =

#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주부반모집실착취 학교서관감법검마철교보보관복초기 합 후 소방인력 8395명 지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 원 (지방직 7·9급 일반직 44000여명 공채)

·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8일 시행  
서울7·9급 7월19일, 9급 8월17일 시행

## 개강 5월 1일 (주·야 겸합반 모집)

(현재상담연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 법, 공공안전학, 행정, 기타

= 주2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 부대시설 ·

- 강의실(200여석) · 구내식당
- 입학지원비서실 · 지하주차장
- 합격률 향상을 최선사실!
- 매일 필요한 강의 모의고사 실시!

#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동부서무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